

#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 발판 다진다

## 620억원 확보...사업 본격 추진 지역 미래산업 핵심 동력 기대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도 “바이오 특화 중심도시로 거듭”

순천시가 그린바이오 핵심사업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300억원)’와 ‘그린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320억원)’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모두 통과되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승주에 △바이오 특화 표준화 생산 기술 △환경정밀제어기 보급 △국내최초 생물 전환 GMP인증 공장 구축 △스마트 유통 플랫폼 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 등 그린바이오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순천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이다.

승주에 건립 예정인 그린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는 30개의 기업 입주공간과 시제품이 제작가능한 건강기능식품

GMP 장비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아파트형 공장 시설로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620억원의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산업화를 지원해 바이오 원료부터 소재화, 제품생산, 유통(수출) 및 홍보까지 산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연구기관과 입주기업 R&D 연구지원까지 옛 승주군청 일원이 K-그린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승주에 건립될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는 순천의 미래 신산업을 이끄는 핵심 산업 지구로써 △일자리 창출 700명 △승주를 인구 증가 450명 △소득 창출 155억원 △매출액 41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승주 지역 활성화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균형발전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재정 투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 12월까지 사업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구 지정과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진기지와 관련 그린바이오 산업도 순항이다. 순천시의 대표 출연기관인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바이오센터)와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발효센터)는 2023년 경영실적평가에 대해 각각 86.25점과 86.96점을 받아 2022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순천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바이오센터는 기업 및 타기관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발연구 등을 수주해 약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발효센터는 설립된지 2년여 만에 콤바차 등 발효식품 판매 및 연구수주로 7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두 재단은 △순천 고들빼기를 활용한 제품 개발 △순천 매실액과 쌍화액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순천만 미생물을 활용한 자원화 연구 △순천형 스코비(SCOBY) 개발 및 보급 △관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등 지역특화 작목을 가지

고 연구·기업지원·제품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2023 정원박람회 성공의 도시 파워를 웰니스에 연결 순천의 새로운 캐시카우(cashcow)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지구 지정을 대비해 시는 관련 용역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내년 상반기 육성지구 지정 및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재가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는 지역 정주 엘리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생물전환 산업과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순천시가 남해안벨트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 구례군, 내달 13일까지 운영

구례군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구례 감’ (단감, 대봉)의 집중 출하 시기에 맞춰 11월13일까지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5일시장에 신규 조성된 주차장에서 장날인 10월 23·28일, 11월 3·8·13일에 열리며, 총 10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천혜 자연환경에서 자란 ‘구례 감’은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착색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다. 또한 비옥한 토질 덕분에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시중의 일반 감보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 직거래 장터는 생산 농가의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맛 좋은 ‘구례 감’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장흥군, 걷거리듬댄스 대회 성료 노인맞춤형 서비스 이용자 참여

장흥군은 제22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걷거리듬댄스 경진대회가 지난 18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인 차오름아카데미에서 주관했다.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도 내 20개 시군 1200여명의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이용자 어르신 33개 팀이 참여했다.

행사는 걷거리듬댄스 경연과 품바, 부채춤, 건강장수춤, 타악 퍼포먼스 등 단체 공연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대회 참여자들은 경진대회가 종료된 후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장으로 이동하여 개막식에 참석하고 박람회장을 관람하는 등 통합의학학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이 지난 21일 보성국민체육센터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 보성군,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성군은 지난 21일 보성국민체육센터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 훈련과 토론 훈련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토론 훈련은 보성군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실무반별 대응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훈련 중점사항은 △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 상황 보고 및 전파 △초기 화재 진화 및 인명 대피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 기구 설치·운영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응 △현장 훈련과 토론 훈련을 병행하는 통합 연계 훈련 추진 등이다.

올해하반기 안전한국훈련은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며 산불, 다중이용 시설 화재, 인파 밀집 사고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실질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 고흥군, 민선 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 공약 추진율 99%

고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4년 3분기 민선 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영민 군수와 전 부시장, 관련 팀장 등이 참석하여 민선 8기 공약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진단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전제 100개 공약 중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1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하였고, 48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어 정상 추진율은 99%에 이른다.

완료된 주요 공약으로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로드맵 수립 △고흥관광 종합계획 정비 △농수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귀농·귀촌인 지역공동체 정착 종합계획 마련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녹동항 드론쇼 개최 △고흥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 △가정방문 노인 전담 주치의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의료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여성 건강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이 있다.

더불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광주~고흥 고속도로,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등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달성 기반이 될 대형 공약들도 정상 추진 중이다. 군수 지시사항은 총 126건으로, 올해 3분기까지 완료된 40건을 제외한 당면 현안 86건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고흥=심정우 기자

## 전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고흥군, 내달 4일까지 참가자 모집

고흥군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2024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11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여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6만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해 32만원 상당의 당일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 거주 만 6세 이상의 관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 98명과 저소득층 147명, 총 24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원 여행상품은 순천·광양 여행, 여수 여행, 곡성 여행 3가지 당일 여행상품이며, 지정 여행일(11월 8, 9, 15, 16일) 중 희망하는 날로 복수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웠던 군민들도 이번 사업을 통해 부담 없이 힐링하고 생활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백운장학회에 합동 기부금 전달 포스코DX 노사

포스코DX 노사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300만원, 총 6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포스코DX 노동조합은 지난해 400만원을 장학회에 기부했으며, 올해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재열 포스코DX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보람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권경환 포스코DX 광양자동차사업실장은 “상생과 화합 속에 노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기탁을 노사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백운장학회가 되었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받아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991년 설립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시 출연, 기업·시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274억원의 기부를 받아 지금까지 학생 1만5912명에게 13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양=안영준 기자